한국고전연구 65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4/223~252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4.65.223

〈심청전〉에 나타난 돌봄의 제 양상

백지민*

<차 례>

1. 서론
2. 사적 윤리의 영역에서의 돌봄
  1) 부부: 심학규-곽씨부인, 뺑덕, 안씨부인
  2) 부녀: 심학규-심청
3. 공적 정의의 영역에서의 돌봄
  1) 마을 공동체
  2) 국가 공동체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심청전>을 대상으로 돌봄의 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효녀 심청이라는 관용어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효'를 주제로 하는 텍스트라는 틀에 가두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제약이 된다고 보았다.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윤리의 영역을 넘어 정의의 영역에서도 유효한 의미가 있다. 효는 자녀가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로, 일방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효가 넓은 범위에서의 돌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고, 일방향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 속에서 주고 받는 행위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심청전>을 돌봄을 중심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심청전>에는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돌봄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돌봄의 양상을 사적 윤리의 영역과 공적 정의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돌봄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서의 돌봄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관계성과 맥락성이다. 이에 따라 사적 윤리의 영역에서는 부부 관계와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학술연구교수

www.kci.go.kr

부녀 관계를 중심으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공적 정의의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인 가족의 단위에서 마을-국가 단위로 돌봄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돌봄이 윤리적 측면을 넘어 정의적 측면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청전>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통해 돌봄의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돌봄을 권면하는 작품이다. 돌봄의 대상이 가족 구성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단위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청전>을 돌봄의 서사로 독해하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개개인의 돌봄 수행이 공동체 내에서 윤리적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맥락을 밝힘으로써 돌봄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심청전, 돌봄, 돌봄윤리, 사적 윤리, 공적 정의

1. 서론

<심청전>은 <춘향전>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고소설 작품 중 하나이다. 약 150여 종에 달하는 이본이 그 방증이다. <심청전>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학계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심청전>과 관련한 연구들은 특히 '효'에 집중하였는데, 『교방가요』의 "심청가는 눈먼 아비를 위해 몸을 파는 이야기로, 이는 효를 권하는 것이다"라는 기록으로부터 출발한다.[1]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심청전>을 다른 나라의 설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효성을 그려 심청을 이상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2] "효녀 심청"은 마치

1) 정현석 편저, 성무경 역주, 『교방가요』, 보고사, 2002, 224쪽.

www.kci.go.kr

고유명사처럼 심청이라는 캐릭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심청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효'를 실행하는 행위자인 '심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심청이 행하는 효행의 성격과 의미, 사회적 파장, 그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한동안 '효를 행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저버리는 불효를 저지른 것을 어떻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효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3] 이 논의들에서는 주로 심청의 효행을 자발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외부적 요인-이념의 희생양, 가부장제의 강화, 인신매매라는 비도덕적 문제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자면, 그간의 연구들은 '효'를 중심으로 <심청전>을 분석해왔다. 사전적으로 '효'는 자식이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일방향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인 '돌봄'으로 <심청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돌봄'을 중심으로 심청의 주체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 주목된다.[4] 이 논의는 <심청전>을 '효'의 서사가 아닌 '돌봄'의 가치로 읽어내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심청'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돌봄'의 가치를 찾아내고자 했기에 <심청전> 작품에 나타난 '돌봄의 제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보았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2)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47쪽.

3) 김동건, 「<심청전>에 나타난 욕망과 윤리의 공존 방식」, 『판소리연구』 32, 판소리학회, 2011;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장덕순 외 편), 집문당, 1986;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재현-공감과 불화의 재현양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4) 남기민, 「돌봄윤리로 읽는 <심청전>」, 『고소설연구』 53, 한국고소설학회, 2022.

www.kci.go.kr

여기에서 출발한다. <심청전>은 극빈층 맹인 가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비극과 판타지적 극복을 그린 작품으로 읽힌다.[5] 때문에 심학규와 심청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심청전>에서 주목할 만한 돌봄의 관계는 심학규와 심청의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심청을 단순히 이념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로 보는 논의들은 기존 사회를 지나치게 반성적·비판적 시선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보인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을 그저 피해자로 바라보려는 시각-편견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가부장제 사회라는 여러모로 역할 구분이 엄격했던 시기에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체적으로 자기 존재를 입증하고자 했던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사적·공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되기 위한 노력 역시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돌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는, 역사적으로 돌봄이 '여성성'과 연관되어 평가절하되었고 가정이라는 영역과 재생산이라는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묶여 여성의 일로 여겨진 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6] 이에 따라 <심청전>에 나타난 다양한 돌봄의 양상을 여성과 가정의 영역에 제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맥락성과 복합성, 연계성의 측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심청전>에서 돌봄의 행위자는 심청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청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이 형상화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의 양상을 읽어내고자 한다.

돌봄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care는 보살핌, 관심, 걱정, 슬픔, 애통,

5) 박재인, 「<심청가>를 통해 본 고통의 연대와 국가 역할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46, 2017, 192쪽.

6) 더 케어 컬렉티브 저, 정소영 역,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52쪽.

www.kci.go.kr

곤경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caru에서 출발하는데, 살아 있는 생명체의 요구와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이 어렵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7] 따라서 돌봄 대상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서적인 안정까지도 돌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돌봄 대상과 돌봄 행위자는 일방향으로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돌봄의 행위는 돌봄의 행위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성-맥락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최근 돌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캐롤 길리건을 시작으로 돌봄을 개인윤리에서 집단적인 정치 의제로 발전시킨 바 있지만, 그로이스와 같이 돌봄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이며, 개인적 실천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8] 돌봄의 행위를 윤리적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의 핵심은 돌봄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구체적인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배려하는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특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9] 돌봄윤리는 가족과 우애라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법, 정치적 삶, 사회조직, 전쟁 그리고 국제관계를 망라해 적용되는 적합한 도덕이론으로, 정의와 권리의 윤리 혹은 효용과 선호만족의 도덕률이 간과해왔던 도덕적 고려사항을 강조하면서 발전해왔다.[10] 조안 트론토는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 돌봄을 '육체적 돌봄'과 '정신적 돌봄', 그리고 '정치적 돌봄'으로 세분화하고, 이것을 사적 윤리의 문제에서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한 바 있다.[11]

---

7) 더 케어 컬렉티브 저(2021), 앞의 책, 57쪽.

8)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리는 김성희의 글(「돌봄의 선언과 자기돌봄: 돌봄 이론의 정치적 전회와 비판이론의 윤리적 전회」, 『비교문학』 89, 한국비교문학회, 2023, 61-62쪽)을 참조.

9) 버지니아 헬드 저,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28쪽.

10) 버지니아 헬드 저(2017), 위의 책, 28-29쪽.

www.kci.go.kr

본고에서는 돌봄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돌봄이 윤리적인 문제이면서 개인적 실천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 내에서도 상호의존의 형태로 수행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돌봄에 대한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윤리와 정의는 때때로 서로 대체되는 가치로 간주되기도 한다. 윤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동감적인 이해에 가치를 두는 한편, 정의는 추상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동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12] 그러나 돌봄은 가족과 우애의 윤리적 맥락을 넘어 좀 더 심층적인 사회·경제·정치·사법제도 등의 공적 영역에서 정의적 맥락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선은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회이며,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족이다. 본고에서는 가족의 확장이 곧 마을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사고방식이 돌봄의 윤리가 정의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를 실천하는 행위 주체와 돌봄의 대상이 일방적인 수혜 또는 의존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의존의 방향으로 존재하며 조화와 협력을 추구해왔음을 <심청전>에 나타난 다양한 돌봄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적 윤리의 영역에서의 돌봄

1) 부부: 심학규-곽씨부인, 뺑덕, 안씨부인

가족은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되는 관계이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형성되는 가족 관계는 재생산의 영역에서 돌봄의 대상자와 행위자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는 부부의 역할

11) 조안 트론토 저,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12) 버지니아 헬드 저(2017), 앞의 책, 126쪽.

www.kci.go.kr

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와 같다. 이렇듯 가족의 핵심 구성원인 부부는 가정의 대소사를 관장한다. 이때 가장은 가외의 생산과 관련한 일을 주로 도맡았고, 아내는 가내의 재생산과 관련한 일을 수행·관리하였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부인은 노비가 만드는 음식의 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식재료의 조달을 담당하였다. 또 조선시대 부인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일이 의복 마련이었다. 특히 외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내에서 바느질을 즐겨하여, 바늘과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가 규중 여인의 칠우로 손꼽힐 정도였다. 바느질 솜씨는 조선시대 여성이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다.[13]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양반 여성들의 역할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주거지 마련과 수리, 연료 공급 등의 일들은 남성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학규는 3명의 배우자를 맞이한다. 가문의 쇠락과 눈이 머는 과정을 함께 한 심청의 친모 곽씨부인, 심청이 남경 상인에게 몸을 팔아 떠나간 후 들인 후처 뺑덕어미, 뺑덕어미가 황봉사와 도망간 후에 만난 안씨부인과 각각 혼인을 하였다. 대대로 문명이 자자했던 가문이 영세해지면서 시력까지 잃은 심학규를 돌본 것은 조강지처 곽씨부인이었다. 행실이 청렴하고 지조가 강개하여 사람마다 군자라 칭하던 심학규였지만, 가문이 기울고 눈까지 먼 상태가 되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된다. 이때 심학규에게 필요한 돌봄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과 더불어, 장애를 입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장의 역할-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것이었다.

13) 이기영 외,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녀 간 가내노동 분담: 보완적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정책』 11-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7, 120쪽.

www.kci.go.kr

> 곽씨부인 현철ᄒᆞ야 임사의 덕힝이며 장강의 고음과 목난의 졀기와 예기 가례 닉칙편이며 주남 소남 관져시를 몰을 거시 업스니 일이의 화목ᄒᆞ고 노복의 은의 하며 가산 범졀ᄒᆞ미 빅집사가관이라 이졔의 청염이며 안연의 간난이라 청젼구업 바이 업셔 ᄒᆞᆫ 간 집 단포자의 조불여셕 ᄒᆞ난구나 야외의 젼토 업고 낭셔의 노복 업셔 가련ᄒᆞᆫ 어진 곽씨부인 몸을 바려 품을 팔러 싹반어질 관ᄃᆡ 도포 …중략…일연 삼빅육십일을 하로 반 ᄯᅥ 노지 안코 손틉 발틉 자자지게 품을 파라 모일 젹의 푼을 모야 돈을 짓고 돈을 모야 양을 만드려 일수체게 장이변으로 이웃집 착실ᄒᆞᆫ ᄃᆡ 빗슬 주어 실수업시 바다 들려 춘추시힝 봉졔사와 압 못보난 가장 공경 사졀의 복 조셕찬수 입의 마진 가진 별미 비위 맛쳐 지셩공경 시종이 여일ᄒᆞ니 상ᄒᆞ촌 사ᄅᆞᆷ더리 곽씨부인 음젼타고 층찬ᄒᆞ더라(완판 71장본, 1앞~2앞)

곽씨부인은 몰락한 양반가에서 부녀자가 할 수 있던 가장 쉬운 일인 바느질부터 시작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각종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며 모든 경제적 활동들을 도맡아 하였다. 푼돈을 모아 일수도 놓아가며 계절마다 제사를 모시고, 심학규의 의복과 식생활을 부족함 없이 돌보았다.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육체적 돌봄'부터 시작한다. 심학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경제적인 생산력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돌봄이 필요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던 심학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애 앞에 육체적·심리적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기간 동안 곽씨부인은 부족함 없이 심학규를 보살폈다.

곽씨부인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의식주 걱정 없는 안락한 생활에 적응한 심학규는 마음 속의 욕망을 꺼내놓는다. 심학규의 욕망은 가문의 뒤를 이어 '조종향화(祖宗香火)'를 실행할 '후사'를 보는 것이었다.[14] 이에 곽씨부인 역시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근심을 꺼내놓으며 그 날부터 명산대찰을

14) <심청전> 완판 71장본, 2앞-2뒤.

www.kci.go.kr

찾아다니며 극진히 기원한 끝에 아이를 갖게 된다. 노산의 몸이었던 곽씨부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병을 얻어 죽게 된다. 언제나 돌봄의 행위자였던 곽씨부인은 정작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곽씨부인의 갖은 노력으로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노비를 들일 만큼의 경제력은 갖추지 못하였기에 해산 후 "외풍을 과이 쇠야" 병이 났다.

> 우리 두리 셔로 맛나 히로빅연ᄒᆞ랴 ᄒᆞ고 간구ᄒᆞᆫ 살임사리 압 못보난 가장 범연ᄒᆞ면 노음씨기 숩기로 아모조록 뜻슬 바다 가장 공경ᄒᆞ랴 ᄒᆞ고 풍한셔십 가리진코 남촌 북촌 품을 파라 밥도 밧고 반찬도 어더 식은 밥은 ᄂᆡ가 먹고 더운 밥은 가군 들려 ᄇᆡ 곱푸잔케 춥지 안케 극진 경ᄃᆡᄒᆞᄋᆞᆸ더니 천명이 그 ᄲᅮᆫ인지 인연이 ᄭᅳᆫ쳐진지 ᄒᆞ릴 업쇼 눈을 엇지 ᄀᆞᆷ고갈가 뉘라셔 헌 옷 지여주며 맛진 음식 뉘라셔 권ᄒᆞ릿가 ᄂᆡ가 ᄒᆞᆫ 번 죽어지면 눈어둔 우리 가장 사고무친 혈혈단신 의탁ᄒᆞᆯ 곳 업셔 박아지 손의 들고 집팡막ᄃᆡ 부어잡고 ᄯᅴ 맛추위 나가다가 구렁의도 ᄲᅥ져 돌의도 치여 업푸러져셔 신세자탄으로 우난 양은 눈으로 곳 보난 듯 가가문젼 차져가셔 밥달나는 실푼 쇼릐 귀여 징징 등이난 듯 나 죽은 후 혼ᄇᆡᆨ인들 차마 엇지 듯고 보며 명산 ᄃᆡ찰 ᄉᆡᆫ독ㅇ 들여 사십의 나흔 자식 …중략… 쳔명을 어길 길이 업셔 압 못보난 가장의게 어린 자식 ᄆᆡᆨ게 두고 영결ᄒᆞ고 도라가니 가군의 귀하신 몸이 ᄋᆡ통ᄒᆞ여 상치 말고 쳔만보즁 ᄒᆞᄋᆞᆸ소셔 차싱의 미진ᄒᆞᆫ 인연 다시 만나 이별 말고 살이라 ᄋᆡ고 ᄂᆡ가 이졋소 져 아히 일홈을 심쳥이라 지여 두고 나 ᄊᆡ던 옥지환이 함 속의 잇스니 심쳥이 자라거든 날 본 다시 ᄂᆡ여 주고 나라의셔 상사ᄒᆞ신 돈 수복강영 ᄐᆡ평안락 양 편의 ᄉᆡ긴 돈을 고흔 홍젼 괴불줌치 주홍당사 벌ᄆᆡ답의 ᄭᅳᆫ을 다러 두어스니 그것도 ᄂᆡ여 치여주오 (완판 71장본, 5뒤~7뒤)

위 인용문은 곽씨부인의 유언이다. 심학규와의 결혼하여 사는 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본인의 부재 시 심학규와 어린 딸 심청의 돌봄을 누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다. 당장 먹고사

www.kci.go.kr

는 데 시급한 약간의 금전과 어린아이의 젓동냥을 어떻게 해야할 지, 아이가 자라서 어미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 지에 대한 당부를 끝으로 숨을 거둔다. 곽씨부인은 유언에서조차 돌봄의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곽씨부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심학규를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온 조강지처로서 남편과의 애정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심청이 자라서 부친 심학규를 전적으로 돌보았고, 심학규의 공양미 삼백석 약속에 심청은 남경상인들에게 몸을 팔아 그 값을 마련한다. 심청의 부재로 심학규는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었지만 돌보아 줄 행위자가 없었기 때문에, 뺑덕어미와 재혼을 하게 된다. 남경상인들의 배려로 심학규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15] 남경상인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년 나누어 주어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안배하였다. 이렇게 생긴 종잣돈을 동네 사람들이 불려주어 심학규가 제법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자 뺑덕어미가 자원하여 첩으로 살게 된다.[16] 이 때 첩으로써 뺑덕어미에게 주어진 일은 시력을 잃은 심학규의 의식주와 관련한 돌봄을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혼인관계로 가정에 속하지 않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첩의 지위라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돌봄의 노동에 대해 경제적 기반을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뺑덕어미와 심학규는 곽씨부인과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뺑덕어미는 양식을 떡과 바꿔 먹거나 베를 내어주고 술을 사먹는 등 가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총각을 유인하는 등 “제반 악증”을 다 겸한 인물

15) <심청전> 완판 71장본, 26뒤-27앞.
16) <심청전> 완판 71장본, 42뒤-43앞.

www.kci.go.kr

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한 와중에 착실히 가산을 탕진해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결국 심학규와 함께 도화동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된다.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동냥을 할 수 없었던 심학규가 뺑덕어미를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난 것이다. 이곳 저곳을 떠돌던 심학규와 뺑덕어미는 나라에서 여는 맹인잔치에 참석하고자 황성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 심학규의 길잡이 역할을 하던 뺑덕어미는 시력 장애의 정도도 심하지 않고 가산도 넉넉한 황봉사를 따라가버렸다. 뺑덕어미가 심학규 대신 황봉사를 따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적 형편 때문이었다.[17] 가산을 탕진하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심학규에 비해 가산이 넉넉한 황봉사를 택하면 더이상 떠돌지 않고 평탄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이다. 기실 뺑덕어미가 심학규를 돌보는 역할을 자처한 것은 심학규의 형편이 넉넉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심학규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황봉사의 증상은 그에 비해 경증이었던지라, 돌봄 노동의 강도가 더 낮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 뺑덕어미의 입장에서 심학규를 버리고 황봉사를 따라가는 일은 효용 및 효율적 측면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다.

조선시대 처와 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18] 뺑덕어미는 '첩'의 위치에서 심학규를 돌보았기 때문에, 가장의 능력 부재 시 맡게 되는 책임의 무게가 '처'와는 다르다.[19] 『대명률직해』 혼인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7) <심청전> 완판 71장본, 51뒤-52앞.

18)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362쪽.

19) 애초에 뺑덕의 신분은 작품 중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뺑덕어미가 처음 등장할 때 "본촌의 셔방질 일수 잘ᄒᆞ여 밤낫업시 홀네ᄒᆞ난 긔갓치 눈이 벌게게 단이난 쏑덕어미"(<심청전> 완판 71장본, 43앞)라는 대목을 보면, 양인 여성이 아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몰락한 양반이지만 양반의 허울을 가진 심학규와 뺑덕어미는 정식으로 혼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뺑덕어미는 심학규를 만나기 전에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된 혼인을 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처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면 장 100이고, 남편의 뜻에 따라 시집보내거나 판다. 도망하여 개가하면 교형이다. …중략… 함부로 개가하면 장 100이다. 첩은 각각 2등급을 줄인다.”[20]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경우 처와 첩의 처벌 경중이 다른 것으로 보아, 남편과 처 사이의 관계가 남편과 첩 사이의 관계보다 엄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1] 조선시대 처와 첩 사이의 권한과 책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처와 달리 첩은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첩으로 들어온 뺑덕어미는 맹인 심학규의 의생활과 식생활 전반을 돌보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학규에게 의지하는 처지였다.[22] 심학규의 돌봄을 자처하였던 이유인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뺑덕어미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한 행위였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돌봄도 중단된 것이다. 사적 윤리의 영역에서 가족 간 돌봄을 당위와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해석한 결과이다.

길잡이 없이 홀로 힘겹게 도착한 황성에서 심학규는 맹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온 맹인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정처없이 헤매다가 어떤 여인의 부름에 한 집에 머무르게 된다. 바로 심학규의 세 번째 배우자 안씨부인의 거처였다. 안씨부인의 시비는 길을 가던 심학

20) 『대명률직해』 권6 혼인 <출처> 123-2.

21)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79쪽.

22) 뺑덕어미와 심학규의 혼인에 대해서는 판본마다 조금씩 상이한 점들이 있는데, 다른 판본인 신재효본에서는 정력이 왕성한 심학규가 과부들을 찾아가 재력을 과시하며 재혼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본 뺑덕어미가 자원하여 후처로 들어오게 된다고 나와 있다. 김동욱 소장 필사본 43장에서는 뺑덕어미가 상당 기간 동안 심봉사 집을 드나들면서 심봉사를 유혹하여 후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뺑덕어미론」,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8-9쪽)

www.kci.go.kr

규가 심씨 성을 가진 맹인임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불러들여 저녁식사를 대접한다.

> 닉의 셩은 안가요 황셩의셔 세거ᄒᆞᄋᆞᆸ더니 불힝ᄒᆞ여 부모 구몰ᄒᆞᄋᆞᆸ고 홀노 이 집을 직키여 잇사오며 시년은 이십오 셰요 아직 셩혼치 못ᄒᆞ엿거날 일직 복술을 빈와 비필될 사ᄅᆞᆷ을 가리ᄋᆞᆸ더니 일젼의 ᄭᅮᆷ을 ᄭᅬ니 ᄒᆞᆫ 우물의 히와 달리 ᄯᅥ러져 물의 잠기거늘 쳡이 건져 품의 안어 뵈이니 ᄒᆞ날의 일월은 사ᄅᆞᆷ의 안목이라 일월리 ᄯᅡ러지니 날과 갓치 밍인인 줄 알고 물의 잠겨쓰니 심씬 줄 알고 일직 종을 시기여 문의 지닉는 밍인을 차례로 무러온 제 여려 날이오 천위신조ᄒᆞ사 이제야 만나오니 연분인가 ᄒᆞᄋᆞᆸ닉다(완판 71장본, 61앞)

이 인용문에 안씨가 심씨 성을 가진 맹인을 기다려 남편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드러나있다. 조실부모하고 홀로 살아온 안씨는 심학규와 같은 맹인이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몽에 따라 남편이 될 사람을 기다려온 것이다. 안씨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가산이 넉넉하였고, 부릴 종도 있었다. 따라서 미혼인 상태의 여성인데다 맹인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평소 꿈 해몽을 잘 하던 안씨는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 기꺼이 나이 든 홀아비, 그것도 가진 것 하나 없는 맹인이었던 심학규와 혼인을 한다. 따뜻한 밥 한끼와 잠자리, 그리고 '돌아올 곳'을 마련해준 안씨부인의 돌봄은 오직 '연분'이 될 사람에 대한 꿈의 해몽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안씨부인은 첫날밤을 보낸 심학규가 흉몽을 꾸고 수심에 잠겨 있자 그 꿈이 흉몽이 아닌 길몽임을 풀이하여 맹인잔치에 참가하도록 다독이기도 한다. 불안정한 심리까지 위로하는 정신적 돌봄의 역할까지 하였다. 도화동에서 심학규가 느끼던 불안을 뻔뻔한 거짓말로 억누르려던 뺑덕어미와는 다른 태도이다. 안씨의 꿈 해몽은 서사 구조 안에서는 다가올 심청과의

www.kci.go.kr

해후를 예고하여 기대감을 북돋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심학규가 심청과 해후하여 시력을 회복하고 부원군이 되기까지는 단 하룻밤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로, 안씨의 이러한 돌봄의 행위는 '자처'하였다는 점에서는 뺑덕어미와 같지만,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결을 달리한다. 안씨부인의 경우, 심학규와 같은 맹인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심학규가 가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안씨부인은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심학규에게 물질적·정신적 돌봄을 충실하게 행하였다.

2) 부녀: 심학규-심청

가족을 이루는 또 다른 방식은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자식의 관계이다. 천륜으로 이어진 이 관계는 부부 관계와는 달리 선택이 불가능한 관계이다. 부모는 '자식'을 돌볼 의무가 있다. 비록 본인 스스로조차 잘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도 더욱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한다. 심학규는 곽씨부인의 생전에는 동냥은커녕 곽씨부인의 돌봄을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였다. 그러나 곽씨부인의 죽음 후, 어린 심청을 홀로 키워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심청에게 젖을 얻어 먹이기 위해 마을의 빨래터며 아이를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한다.[23]

이러한 돌봄 덕분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7-8살이 되었고, 이 때부터는 맹인인 부친을 대신하여 동냥을 시작한다.

> 미물 짐싱 가마구도 공임 져문 날의 반포홀 조를 아니 ᄒᆞ물며 사ᄅᆞᆷ이아 미물

23) <심청전> 완판 71장본, 10뒤-11앞.

www.kci.go.kr

> 만 못ᄒᆞ오릿가 아부지 눈 어두신듸 밥 빌너 가시다가 놉푼 ᄃᆡ 집푼 ᄃᆡ와 조분 질노 쳔방지방 단이다가 업푸러져 상키 쉽고 만일 날 구진 날 비바롬 불고 셔리 친 날 치워 병이 나실가 주야로 염여오니 ᄂᆡ 나히 칠팔 셰라 싱아육아 부모은덕 이제 봉힝 못ᄒᆞ면 일후 불힝ᄒᆞ신 날의 ᄋᆡ통ᄒᆞᆫ들 갑사오릿가 오날부텀 아부지는 집이나 직키시면 ᄂᆡ가 나셔셔 밥을 빌어다가 조셕근심 덜게 ᄒᆞ오리다(완판 71장본, 12앞)

이 인용문은 어린 나이의 심청이 홀로 동냥에 나서려고 할 때, 만류하는 심학규를 설득하는 장면이다. 어린 심청이 심학규를 봉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포'의 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청은 마냥 어린아이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행위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인이지만 맹인이라는 불편함을 가진 부친 대신 어린아이지만 시력이 멀쩡한 자신이 동냥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때부터 심청은 과거 곽씨부인이 심학규를 돌보았던 것처럼 부친의 생활 전반과 생계를 책임진다. 동냥을 나서는 길에는 높은 곳과 깊은 곳, 좁은 길 등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언제든 등장한다. 때에 따라 궂은 날씨도 어려움을 더한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심학규와 심청 사이에는 단순한 혈연으로 이어진 정 이상의 연대와 공감이 존재한다.

동냥을 다녀온 심청은 부친을 살뜰히 챙기고, 본인 대신 동냥을 다녀온 어린 딸을 대하는 심학규는 애간장이 탄다. 이에 심청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천리의 떳떳한 인사"라고 하며 부친을 안심시킨 후, 손을 이리저리 끌어 반찬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살뜰히 보살핀다.[24] 이렇게 심청과 심학규의 사이에는 돌봄의 행위가 상호 교차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함께 곤궁한 나날을 헤쳐나간 부녀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감이 존재하였고, 이는

24) <심청전> 완판 71장본, 13앞-13뒤.

www.kci.go.kr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안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절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이 되면 생계를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양가집 규수로 여성의 덕목을 기르는 데에만 힘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청은 자신의 돌봄 없이 홀로 남을 부친의 걱정에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하였다.[25]

실제로 심청의 돌봄에 익숙해진 심학규는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심청을 기다리다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섰다가 개천에 빠지게 된다. 주린 배는 등에 붙는 것 같고 방에 불을 때지 않아 추위에 떠는 심학규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평소 생활 전반의 일들을 심청에게 오롯이 의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26] 심학규는 개천에 빠진 것을 구해준 몽운사 화주승에게 눈을 뜨기 위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할 것을 덜컥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청은 남경상인들에게 몸을 팔게 된다. 남경상인들이 젊은 처자를 구한 까닭은 장삿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죽을 자리임을 알면서도 심청은 기꺼이 삼백 석에 스스로를 내어놓는다. 오히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할 길이 생긴 것에 반색한다.[27]

심청 역시 죽음이 두려운 어린 소녀일 뿐이다.[28] 그러나 그 두려움에는 본인의 짧은 생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늙고 앞도 못보는 부친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데 대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자신이 죽은 후 보살피지 못할 부친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둔다.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부친의 식사를 살뜰히 챙기고 남경상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떠나는 심청은 끝까지 심학규의 개안과 안녕을 빌며 길을

25) <심청전> 완판 71장본 16앞.
26) <심청전> 완판 71장본, 16뒤-17앞.
27) <심청전> 완판 71장본, 21뒤.
28) <심청전> 완판 71장본, 22뒤.

www.kci.go.kr

나선다. 행여라도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을 갖게 될까 이 모든 것이 천명이라 표현하여 부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는 위로까지 건넨다.[29] 심청이 부친을 돌보는 이유는 "은혜 갚음"이라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은혜도 크거니와, 앞 못 보는 아버지가 홀로 어린 아이였던 심청을 어렵게 키웠으니 그 은혜가 몹시 크기 때문에 그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앞을 못 보는 늙은 부친을 돌볼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강한 책임감이 작용한 결과, 아버지의 개안을 위한 공물 공양미 삼백 석과 목숨을 바꾸는 희생을 감내하였다.

3. 공적 정의의 영역에서의 돌봄

1) 마을 공동체

조선은 유교국가로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규범화시키기도 했다. 성리학적 사고관을 제도화한 조선은 가족 단위에서 마을 단위, 국가 단위까지 확장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고, 이를 윤리와 법으로 규범화하였다. 개인의 욕구나 개인적 권리보다 인간관계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청전>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맹인 심학규와 젖먹이 심청이다. 이들에 대한 가장 가까운 1차적인 돌봄의 행위자는 곽씨부인이었지만, 곽씨부인은 심청을 출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산후열로 죽음을 맞게 된다. 심청은 갓 태어난 젖먹이로 돌봄이 가장 절실한 상태였는데, 그간 맹인으로 돌봄을 받기만 했던 심학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장 젖을 먹어야 하

29) <심청전> 완판 71장본, 26뒤.

www.kci.go.kr

는 심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마을의 여성들이었다. 전 장에서 심학규가 마을 아낙들을 찾아다니며 젖동냥을 한 장면을 살펴보았다. 마을 여성들은 심학규의 부탁에 싫은 내색 없이 심청에게 젖을 먹인다. 더하여 후일도 찾아오라는 따뜻한 말도 덧붙인다. 배가 불룩할 정도로 부족함 없이 젖을 나누어주는 마을 여성들의 행위 역시 돌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청이 조금 더 자라서는 부친 대신 홀로 동냥에 나선다. 추운 겨울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어린 아이가 앞 못보는 부친을 위해 밥 한 술을 적선해줄 것을 부탁하니, 마음 사람들이 밥이며 김치며 장을 아끼지 않고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30] 덕분에 어린 심청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두 서너 곳만 돌면 금방 바가지를 채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아이에게 먹일 젖이나, 본인들이 먹을 끼니의 일부를 타인인 심청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청에게 나누어준 반찬이 김치와 장에 그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풍족하지 않은 형편의 마을 사람들은 고난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경험들의 축적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곽씨부인은 생전에 장리변으로 이웃이 급할 때에 빚을 내어주고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는 했다. 만약 곽씨가 고리로 가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다면 마을 사람들과 척을 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마을 사람들은 곽씨부인의 음전함을 칭찬할 따름이었다. 이로 보아, 인망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월평 무릉촌의 장승상댁의 부인은 일찍 사별하고 세 아들을 키워낸 뒤 적적한 나날을 지내던 차에, 심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장승상 부인은 심청을 직접 만나본 후, 심청의 외양과 태도가 비범한 것을 보고 수양딸

30) <심청전> 완판 71장본, 12뒤-13앞.

www.kci.go.kr

로 들어올 것을 제안한다. 주지하듯 심청은 이 제안을 바로 거절한다. 홀로 지낼 앞 못 보는 부친이 염려되어서였다. 거절의 이유조차 마음에 들었던 장승상 부인은 비록 수양딸을 삼지는 못하여도 모녀의 정을 두고 종종 만날 것을 당부한다.

심청의 시선에서 바라본 장승상댁은 마치 선계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묘사된다.[31] 이제껏 동냥과 허드렛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심청에게는 승상가의 부귀한 저택이 그야말로 별천지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비록 이른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였으나 아들을 셋이나 낳아 후사를 탄탄히 하여, 여유롭고 근심 없는 노년을 보내는 장승상 부인도 적적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돌보는 심청에게 더욱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장승상 부인은 심청이 남경상인에게 팔려가던 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심청을 만류한다. 남경상인에게 받은 백미 삼백 석도 당장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며 간절하게 심청을 붙잡는다.[32] 하지만, 심청은 부친의 개안을 위한 제물에 정성을 들여야하는데다, 남경상인들과 이미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고 거절한 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글 한 수를 남겨둔다. 장승상 부인은 심청의 굳건함을 보고 차마 더 만류하지 못하고 심청을 보내는데, 심청이 남기고 간 글 한 수를 중당에 걸어 소중히 여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친을 잃은 심청에게 장승상 부인의 따뜻한 대접은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인신공양이라는 천인공로할 일을 저지르는 남경상인들조차도, 심청의 사후 홀로 남을 심학규를 배려하여 당초 약속했던 심청의 몸값 백미 삼백 석 외에 심학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량과 금전을 별도로 지급한다. 특히 거금을 한꺼번에 주면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31) <심청전> 완판 71장본, 14앞-14뒤.
32) <심청전> 완판 71장본, 27앞-27뒤.

www.kci.go.kr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33]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인면수심의 장사치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따른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인정을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도움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학규에게는 구명줄과 같은 의미가 있다. 저의가 무엇이든 결국 남경상인 역시 홀로 살아갈 가난한 맹인 심학규에게 일회성 기부가 아닌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일종의 돌봄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난 마을 공동체의 돌봄은 결국 마을 구성원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을이나 소규모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 서로를 돌보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부분으로 여겨지며, 이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더욱이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돌봄의 행위들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 단위의 돌봄은 돌봄의 대상이나 행위자가 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국가 공동체

뺑덕어미의 도망으로 홀로 남게 된 심학규는 황성으로 향하는 길에 길잡이가 없어 고초를 겪게 된다. 잠시 개천에서 몸을 씻던 중에 그나마 가진 의복과 짐을 모두 도둑맞기도 한다. 비루한 신세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대성통곡 하던 차에 지나가던 무릉태수의 행차를 만나게 된다. 무릉태수는 벌거벗고 길에 주저앉아 있던 심학규의 전후사정을 듣고 의복을 내어준

33) <심청전> 완판 71장본, 26뒤-27앞.

www.kci.go.kr

다.[34] 의복을 갖춰 입은 심학규는 무릉태수에게 자못 뻔뻔하게 신발과 끼니, 그리고 담배까지 요구한다. 행실이 청렴하고 지조가 강개하여 군자 소리를 듣던 심학규는 조강지처의 사별과 애지중지 키운 심청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뺑덕어미의 도망에 대한 분노,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오갈 데 없어진 신세로 전락해버린 좌절감 등이 작용하여 본래의 성품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릉태수가 심학규에게 의복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글을 지어 올리라는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심학규가 사정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의 유식함을 짐작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심학규는 의복 등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쌓았던 학식뿐이었다. 무릉태수가 심학규의 뻔뻔한 요구를 모두 흔쾌히 들어준 것은 높은 관직에 있는 관원으로서 백성을 긍휼하려는 의도가 기저에 자리잡은 결과였을 것이다. 심학규의 행색을 보고, 그의 사정을 들은 후 가긍히 여겼다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은 용궁에서 모친도 만나고 연꽃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황후가 된다. 몸도 편하고 존귀한 신분이 되었으나 홀로 지낼 부친 걱정에 수심이 가득한 심청에게 황제가 연유를 묻고, 이에 심청은 그간 감춰두었던 본인의 내력을 그제야 밝힌다. 사연을 들은 황제가 심학규를 부원군으로 봉하고 사람을 시켜 그를 찾아가게 하였으나, 이미 심학규는 도화동을 떠난 상황이었다. 부친을 찾을 길 없어 근심하던 심청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낸다.

> 솔로지신민이 막비왕신이오니 빅셩 즁의 불상ᄒᆞᆫ 비난 환과고독 사궁이요 그 즁의 불상ᄒᆞ계 병신이오나 병신 즁의 더옥 밍인이오니 천ᄒᆞ 밍인을 모도 묘와

34) <심청전> 완판 71장본, 53뒤-56앞.

www.kci.go.kr

> 잔치를 ᄒᆞᄋᆞᆸ소셔 져의더리 천지 일원 셩신이며 흑빅자단과 부모처자를 보와도 보지못ᄒᆞ여 원ᄒᆞᆫ 두믈 푸러 주ᄋᆞᆸ소셔 그러ᄒᆞ오면 그 가온ᄃᆡ의 혹 신쳡의 부친을 만나것ᄉᆞ오니 신쳡의 원일ᄲᅮᆫ 안이오라 ᄯᅩᄒᆞᆫ 국가의 화평ᄒᆞᆫ 일도 되올 듯 ᄒᆞ오니 처분이 엇더 ᄒᆞᄋᆞᆸ신잇가(완판 71장본, 50뒤-51앞)

심청은 맹인이었던 아버지와 돌보아줄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던 어린 시절을 몸소 경험하여 일반 백성의 고통과 간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만백성은 황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 불쌍한 자는 "병신 중에서도 맹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황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하층의 백성들의 사정을 환기하고, 이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 중에 혹시 자신의 부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제안은 심학규의 효성 지극한 심청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황후로서, 백성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맹인잔치를 베푸는 것은 본인의 부친을 찾을 방법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화평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열게 된 맹인잔치에 찾아온 심학규는 드디어 심청을 만난다.

> 엇지 하 반갑던지 ᄲᅳᆺ박기 두 눈이 갈무 ᄶᅥ러진난 소릭가 나면셔 두 눈이 활닥 발거쓰니 만좌 밍인드리 심봉ᄉᆞ 눈 ᄲᅳ난 소릭의 일시의 눈더리 헤번덕 짝짝 간치 ᄉᆡᆨ기 밥 먹거난 소릭 갓더니 뭇소경이 천지 멍낭ᄒᆞ고 집안의 잇난 소경 게집 소경도 눈이 다 발고 ᄇᆡ안의 밍인 ᄇᆡ 밧기 밍인 반소경 청밍간이ᄭᅳ지 몰수이 다 눈이 발가쓰니 밍인의게난 쳔지ᄀᆡ벽 ᄒᆞ엿더라(완판 71장본, 64앞-64뒤)

감히 꿈에서조차 그리지 못했던 딸 심청을 만난 심학규는 반가움이 극에 달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기적은 심학규에게만 일

www.kci.go.kr

어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했던 맹인들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맹인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모든 맹인들에게도 일어났다. 황후 심청이 언급했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대상인 맹인들을 위한 잔치는 그간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자 돌봄이다.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면서 황제가 반포한 교령에는 맹인 중에 한 명이라도 잔치에 대한 소식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관할 수령을 치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자가 없이 모두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중세 봉건사회의 국가 공동체에는 신분마다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민본국가를 주창하던 조선에서는 왕에게 국가의 근간인 백성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왕을 아버지로, 중전을 어머니로 여기던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일컫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초의 인간 관계로, 이 반경이 확대되어 가정과 사회를 형성하고, 가정의 질서는 다시 다수인의 상호 간의 관계로 확대되어 국가사회의 질서체계로 발전된다.[35] 조선에서 효를 충으로 치환하여 지배질서를 강화하였다는 인식 때문에 효와 충을 이야기할 때 일방향의 의무로 오인하기 쉽다.[36] 그러나 부모-자식 관계든 왕-신하/백성 관계든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의 관계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볼 의무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왕과 신하/백

35) 전정태, 「충, 효윤리 문화의 소고」, 『문화연구』 4, 한국문화학회, 2000, 2쪽.

36) 조선시대 '효'가 국가윤리인 '충'으로 발전·확대되는 개념임은 이견이 없다. "효의 내용이 국가에 봉사하는 부분으로 전이하게 되면 충으로 승화되고, 바깥 사회에서 어른을 섬기는 윤리의 바탕이 된다면 순(順;悌)으로 나타나며, 집안에서 베풀어지면 화목으로 나타나고, 세속사회에서 행하여지면 신(信)으로 승화되며 그것이 하향적으로 자녀 등 아랫사람에게 미치면 자(慈)로 표현되는가 하면, 효의 본질로서 국민을 다스리면 애국의 윤리로 나타난다."(전정태(2000), 위의 논문, 2쪽) 이로 보아 효는 상호 간의 관계망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으며, 결국 효는 상호의존적 돌봄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성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대할 때, ‘효’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고 돌봄의 측면에서 살펴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돌봄의 영역은 이제 공적 정의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을 넘어 마을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로 확장되는 돌봄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돌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응징과 돌봄을 잘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쳔자 심학규를 부원군을 봉ᄒᆞ시고 안씨는 졍열부인을 봉ᄒᆞ시고 ᄯᅩ 장승상부인을 특별이 금은을 만이 상사ᄒᆞ시고 도화동 촌인을 연호 잡역을 물시ᄒᆞ시고 금은을 만이 상사ᄒᆞ여 동즁의 구페ᄒᆞ라 ᄒᆞ시니 도화동 사ᄅᆞᆷ드리 은혜여쳔여히 ᄒᆞ여 쳔ᄒᆞ진동ᄒᆞ더라 무창틱수를 불너 예주자사로 이쳔ᄒᆞ시고 자사의게 분부ᄒᆞ야 황봉사와 쏑덕어미를 직각 착디ᄒᆞ리 분부 지엄ᄒᆞ시니 예주자사 삼빅육관의 힝관ᄒᆞ야 황봉사와 쏑덕어미를 잡어 올이거늘 부원군이 쳔쳥누의 좌기ᄒᆞ시고 황봉사와 쏑덕어미를 잡아드리여 분부ᄒᆞ사 네 이 무상ᄒᆞᆫ 연아 산쳡첩 야심ᄒᆞᆫ듸 쳔지 분별치 못ᄒᆞ난 밍인 두고 황봉사를 어더가는 게 무신 ᄯᅳ신야 직시 문초ᄒᆞ니 역촌의셔 여막질ᄒᆞ는 경연이라 ᄒᆞ난 ᄉᆞᄅᆞᆷ의 게집의게 초인ᄒᆞ미로소이다 부원군이 더욱 ᄃᆡ로ᄒᆞ여 쏑덕어미를 능지처참ᄒᆞ신 후의 황봉사를 불너 일은 말삼이 네 이 무상ᄒᆞᆫ 놈아 너모 밍인이지야 남의 안히 유인ᄒᆞ여 가니 너는 조커니와 일은 사ᄅᆞᆷ은 안이 불상ᄒᆞᆫ야 속셜의 탑화광접이라 ᄒᆞ기로 그러ᄒᆞᆯᄀᆞ 소당은 죽일 일리로되 특벌이 졍비ᄒᆞ니 원망치 말나 후일 증십ᄒᆞ이 훗셰상 ᄉᆞᄅᆞᆷ이 이갓치 불의지ᄉᆞ를 본밧게 ᄒᆞ지 못ᄒᆞ난 일이라 ᄒᆞ시고 ᄒᆞ교ᄒᆞ시니라 만조빅관이며 쳔ᄒᆞ 빅셩드리 덕화를 송덕ᄒᆞ더라(완판 71장본, 65앞-65뒤)

황후 심청의 부친으로 부원군에 봉해진 심학규와 그의 3번째 배우자인 안씨는 정열부인에 봉해졌다. 도화동에 살 때 심청을 수양딸 삼고 싶어했던 장승상 부인에게는 금은이 하사되었고, 도화동 마을 사람들에게는 잡역을 면하여주고 금은을 하사하였다. 또한 개천에서 몸을 씻다가 의복과 짐

www.kci.go.kr

을 모두 도둑맞았을 때 도움을 주었던 무릉태수는 예수자사로 이천하였다.[37]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 심학규와 심청을 여러모로 돌보아주었던 이들에게 천자가 보상을 한 것이다. 천자의 보상은 돌봄을 수행한 이들의 치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을 독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버리고 도망간 뺑덕어미는 부원군이 된 심학규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도망간 남녀를 찾는 데 공권력을 이용하였고, 심문 끝에 뺑덕어미는 능지처참을, 황봉사는 유배형을 내렸다. 심학규가 심문하고 처벌한 것은 개인의 원한에 대한 사적 복수가 아니라 부원군의 직위를 가진 자가 법리적 절차에 의해 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대명률직해』혼인조에 따르면, 도망간 처첩에 대한 처벌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후일 사람들이 불의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있다.

이처럼 '돌봄'은 사적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행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정의의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심청전>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통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족을 잘 돌보면 보상을 받는다는 단순한 명제의 실현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감수해야 할 돌봄에 대한 권면의 텍스트인 것이다. 돌봄의 대상은 내 가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 단위로 확장되어 사회적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4. 결론

지금까지 <심청전>에 나타난 돌봄의 다양한 양상들을 사적 윤리의 영

37) 무창틔수: 무릉태수의 오기로 보임.

www.kci.go.kr

역과 공적 정의의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그간 <심청전>을 읽는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효'라는 측면에 집중하였는데, 효를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심청전>은 다양한 돌봄 관계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돌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사적 윤리과 공적 정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윤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가족 내에서 부부 관계와 부녀 관계로 다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부부 관계에서는 심학규를 중심으로 곽씨부인과 뺑덕어미, 안씨부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처와 첩의 지위에 따라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곽씨부인은 조강지처로 가문이 몰락하고 시력을 잃은 심학규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았으며, 각종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뺑덕어미는 생계의 유지를 위해 자처하여 심학규의 첩이 되어 그를 돌보았다. 그러다가 심학규가 가진 가산을 모두 탕진한 뒤에는 그를 버리고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황봉사를 따라 도망갔다. 안씨부인은 심씨 성을 가진 맹인을 만날 꿈을 꾸고 심학규를 배우자로 맞이한다. 부녀 관계에서는 심학규와 심청을 중심으로 돌봄의 상호 의존성을 살펴보았다. 심학규는 부부 관계에서는 주로 돌봄의 대상이 되었지만, 부녀 관계에서는 돌봄을 주고받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둘째, 공적 정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마을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으로, 고난과 가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모른 체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미를 잃은 젖먹이 아이를 굶기지 않고, 극빈한 맹인 가정에서 동냥을 나온 어린 아이를 구박하지 않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행위나 팔려가는 심청의 목숨 값을 대신 내주려는 행위 등은 공동체 내에서 도움

www.kci.go.kr

이 필요한 이를 향한 넓은 의미에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심청 부녀에게 먹을 것을 흔쾌히 나누어 주던 마을 사람들은 전에 곽씨부인에게 도움을 받은 바 있고, 심청의 몸값을 대신 내주려던 장승상 부인은 심청 덕분에 적적함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마을 공동체에서는 상호 의존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가 공동체에서의 돌봄은 주로 국가가 백성을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원이었던 무릉태수는 맹인 심학규의 사정을 듣고 의복과 신발, 식사와 담배 등을 베푼다. 황후가 된 심청은 맹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된 돌봄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의 수행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보상을 받은 이는 몰락한 양반에서 황후까지 신분 상승을 한 심청이지만, 판타지적 방식으로 받은 보상이었기 때문에 공적 정의의 차원에서 돌봄의 보상을 다루고자 한 본고에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심청전>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고, 돌봄의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돌봄의 실천을 권면하는 작품이다. 이때 돌봄의 범위는 가족 구성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마을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단위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 논문은 <심청전>을 돌봄의 서사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개인의 돌봄 실천이 공동체 내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돌봄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www.kci.go.kr

참고문헌

▌자료

<심청전> 완판 71장본(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209-275쪽.)

▌연구논저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280쪽.

김동건, 「<심청전>에 나타난 욕망과 윤리의 공존 방식」, 『판소리연구』 32, 판소리학회, 2011, 31-59쪽.

남기민, 「돌봄윤리로 읽는 <심청전>」, 『고소설연구』 53, 한국고소설학회, 2022, 137-166쪽.

더 케어 컬렉티브 저, 정소영 역,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1-197쪽.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1-555쪽.

박재인, 「심청가를 통해 본 고통의 연대와 국가 역할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회, 2017, 189-222쪽.

버지니아 헬드 저,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1-389쪽.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장덕순 외 편), 집문당, 1986, 531-539쪽.

이기영·김성희·이현아,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녀 간 가내노동 분담: 보완적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정책』 11-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7, 115-135쪽.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35-60쪽.

전정태, 「충, 효윤리 문화의 소고」, 『문화연구』 4, 한국문화학회, 2000, 1-15쪽.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빼덕어미론」,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쪽.

정현석 편저, 성무경 역주, 『교방가요』, 보고사, 2002, 1-86쪽.

조안 트론토 저,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1-382쪽.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89-518쪽.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쪽.

www.kci.go.kr

ABSTRACT

Several Aspect of Care in "Shimcheongjeon"

Baek, Ji-mi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everal aspects of care in "Shimcheongjeon." While the term "filial daughter Shimcheong" aptly represents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 work, confining it within the framework of a text about 'filial piety' restricts the possibilities for diverse interpretations. In the Confucian values of the Joseon Dynasty, filial piety was a value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in the realm of ethics but also in that of justice. Filial piety, commonly understood as a child's duty to serve their parents well, tends to imply a unilateral relationship. However, this paper posits that filial piety can be included within a broader concept of care, suggesting it involves reciprocal, interdependent actions, thus necessitating a focus on care in "Shimcheongjeon."

"Shimcheongjeon" features various characters in need of care, who engage in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perform acts of care. This study examines aspects of care, distinguishing between the realms of private ethics and public justice, and observes how care extends from the private to the public sphere. Key to examining care in each realm are the notions of relationality and contextuality. In the private realm, the focus is on how care is enacted within spous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public realm of justice, the study explores how care extends from the familial unit to community and national levels. This process confirms that care is portrayed not only ethically but also justly.

"Shimcheongjeon" advocates for the practice of care, illustrating that the performance of care leads to rewards or punishments. The scope of care is not limited to family members but expands through the community and national units, enhancing social cohesion and solidarity. This paper's attempt to interpret "Shimcheongjeon" as a narrative of care highlights

www.kci.go.kr

how individual acts of care contribute to ethical values within the community and to social justice, reminding us that care holds significant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beyond the personal level.

Key Words Shimcheongjeon, Care, Ethics of Care, Private Ethics, Public Justice

논문투고일: 2024.04.15.
심사완료일: 2024.05.06.
게재확정일: 2024.05.08.

www.kci.go.kr